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VIP REPORT

2011년 주요 산업 전망 및 현안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이장균, 이철선, 임상수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23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2072-623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2011년 주요 산업 전망 및 현안

Executive Summary	i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1
2. 2011년 주요 산업 전망	3
① 조선업	
② 기계산업	
③ 자동차산업	
④ 철강산업	
⑤ 석유화학산업	
⑥ 해운업	
⑦ 물류택배업	
⑧ IT제조업	
⑨ 건설업	
3. 시사점	36
■ HRI 경제 지표	40

■ 2011년 산업 전망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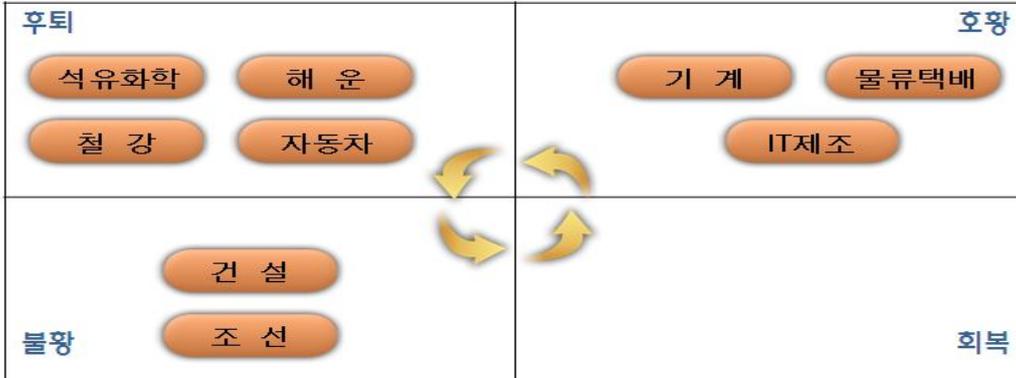
2011년 국내 상당수 산업 경기는 2010년 호황 국면에서 2011년 둔화(후퇴)국면으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이는 국내 산업의 대외(수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교역 증가율이 하락하는 수요 둔화 요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의 경험처럼 글로벌 경기 침체(2009년)와 이에 대한 기술적 반동(2010년) 이후에 나타나는 통계적인 착시 현상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조적 요인으로 장기 침체를 지속하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간의 경기 사이클상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황 지속 업종) 최근 호황을 보이고 있는 업종중 IT제조업, 물류택배업, 기계산업 등은 2011년에도 호황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둔화 전환 업종) 그러나 자동차, 철강, 해운, 석유화학 등 수출 관련 산업들은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 또는 후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적 불황 지속 업종) 건설업과 조선업은 업종 내의 구조적 수급 요인이 경기 침체 탈출의 발목을 잡고 있어 이들 업종이 본격적인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011년 주요 산업별 전망

2011년 산업별 경기 전망을 살펴보면 ① 조선업은 중국과의 수주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 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시장 수요(수주) 확대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산업 경기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기계산업은 신흥공업국들을 중심으로 기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내 업종별로는 생산설비 및 운수 관련 기계 업종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이나, 건설 관련 기계 업종은 전방산업의 침체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 자동차산업은 내수는 국내 경제의 성장세 둔화, 정책 효과 소멸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선진 시장에 대한 수출도 증가세가 약화되어 경기 후퇴 국면으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④ 철강산업은 건설, 조선 등 주요 수요 산업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⑤ 석유화학산업은 내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신흥공업국의 수요가 증대되어 수출 경기는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⑥ 해운업은 수요 측면에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해운 물동량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복량(시장 공급) 과다 문제도 지속될 것으로 큰 폭의 업종 성장세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⑦ 물류택배업은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어 호황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업종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당경쟁 구조가 지속되어 업체의 수익성은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 ⑧ IT제조업은 스마트폰 시장 확대 등으로 완제품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 경기도 2011년 2분기 이후 재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⑨ 건설업은 공공부문의 경우 계속 사업에 의한 지속적인 수요는 존재하나 SOC 예산 감축으로 큰 폭의 수주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간·건축 부문은 주택 경기 침체 속에서 관공서, 플랜트 공사 등 비주택부문의 상대적 호조의 영향으로 그동안의 수주 감소 추세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산업의 2011년 경기 국면 전망 >



■ 시사점

첫째, 세계 경제 성장세 약화로 예상되는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비하여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2011년 대내외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재고가 늘고 잉여 생산 능력이 높아져 경영 악화가 예상된다. 나아가 일부 산업의 경우 기업 생존이 달린 '치킨 게임'이 펼쳐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용절감 노력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R&D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FTA 체결로 접근성이 높아진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하다. 향후 상당수 업종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출 경기가 부진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EU FTA로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기회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 시장에 대한 민·관 및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공조화가 체계화되어야 하며 이 지역에 대한 영업망 확대와 인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녹색 성장 시대의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한 기업의 생산 및 투자 계획의 변화가 요구된다.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업종에 속한 기업들은 향후 선진국 시장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엄격한 환경기준에 부합되는 친환경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 또한,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요구 압력에 대응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생산설비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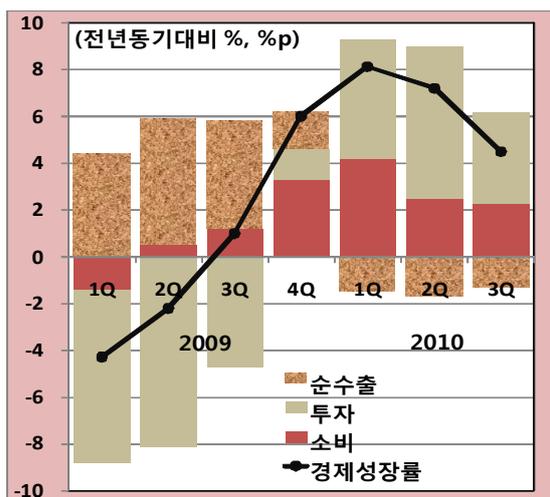
넷째, 구조적 불황 지속 산업에 대해 시장 자율 기능을 통한 조속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조선업과 건설업은 구조적인 수급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산업 리스크가 금융시장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계가 있는 인위적인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시장 자율 기능을 통한 구조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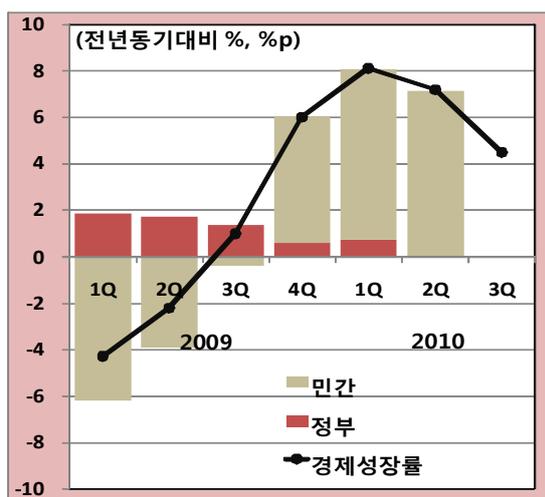
○ 거시 경제 동향

- (경제성장률) 2010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8.1% 이후로 점차 하락하여 3/4분기에 4.5%를 기록하고 있음
- 2010년 들어 순수출은 경제 성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대신 내수 부문이 성장을 견인하는 주력 부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내수 부문중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2010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4.2%p에서 2/4분기와 3/4분기에 각각 2.5%p 및 2.3%p로 하락하는 추세임
 - 투자의 기여도는 2010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5.1%p, 2/4분기 6.5%p, 3/4분기 3.9%p를 기록함
 -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2010년 들어 1%대의 감소세를 지속중임
- 2009년 3/4분기까지 공공 부문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2009년 4/4분기 이후로는 민간 부문이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임

< 지출항목별 성장 기여도 >



< 정부-민간 부문별 성장 기여도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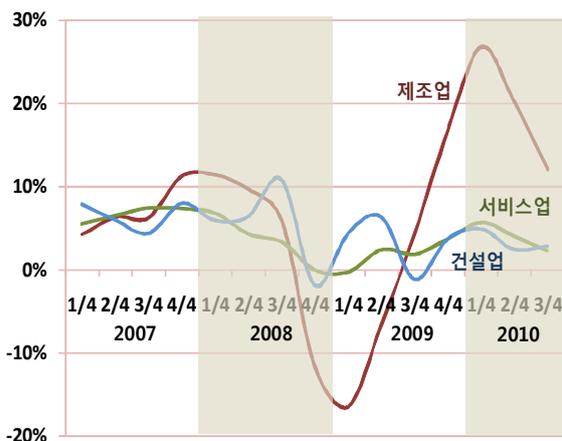
주: 1)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연구원 자체 계산

2) 2010년 3/4분기 민간 및 정부 부문 기여도는 통계 미발표로 표시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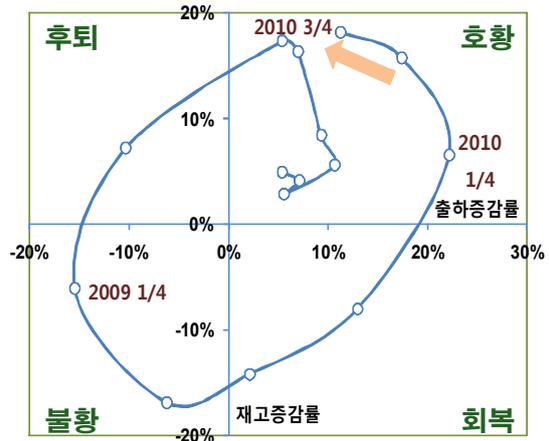
○ 주요 대분류 산업 경기 동향

- 제조업은 2010년 호황 국면에 들어섰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제조업 생산지수는 2009년 3/4분기 증가세로 돌아서 2010년 1/4분기까지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2/4분기 이후 증가율 자체는 둔화되는 모습임
 - 재고-출하 사이클 상 재고와 출하가 모두 증가하고 있어 대부분은 제조업내 업종들이 호황 국면 이상의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서비스업은 2010년 1/4분기를 정점으로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2010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5.7% 증가에서 2/4분기와 3/4분기에 각각 4.0% 및 2.3%로 하락함
- 건설업 경기는 2010년 1/4분기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후 증가세가 다시 약화되며 불황 국면이 지속됨
 -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2010년 전년동기대비 4.9%에서 2/4분기와 3/4분기에 2.4% 및 2.8%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대분류 업종의 생산지수 및 기성액 증감률 >



< 제조업 재고 - 출하 사이클 >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주: 1)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 건설업은 건설기성액(경상)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2011년 주요 산업 전망

(1) 전망의 전제 조건

○ 2011년 대외 여건

- **(세계 경제 전망)**¹⁾ IMF는 2011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0년 4.8%보다 하락한 4.2%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함
 - 2011년에도 세계 경제는 중국, 인도 등의 신흥공업국들의 내수 확대에 힘입어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 미국, 유로,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제들은 내수가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워 제한적인 성장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세계 교역 전망)**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2010년의 높은 증가율에 대한 역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2011년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2010년의 11.4%보다 하락한 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세 지속)** 완만한 세계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국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국제 유가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 지속)** 달러화는 미국 경기 회복세 미흡, 미국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당분간 약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1)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 Recovery, Risk, and Rebalancing」(2010년 10월) 및 현대경제연구원(2010. 9. 20.)의 “2011년 국내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 지속 성장을 위한 분수령이 될 2011년” 「경제주평」, 10-36 (통권 416호) 참조.

< IMF의 주요 지역 및 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 >

(%)

	2007	2008	2009	2010(E)	2011(E)	
					7월 전망	10월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5.3	2.8	-0.6	4.8	4.3	4.2
선진국	2.7	0.2	-3.2	2.7	2.4	2.2
미 국	1.9	0.0	-2.6	2.6	2.9	2.3
유로지역	2.9	0.5	-4.1	1.7	1.3	1.5
일 본	2.4	-1.2	-5.2	2.8	1.8	1.5
개발도상국	8.7	6.0	2.5	7.1	6.4	6.4
중 국	14.2	9.6	9.1	10.5	9.6	9.6
러 시 아	8.5	5.2	-7.9	4.0	4.1	4.3
브 라 질	6.1	5.1	-0.2	7.5	4.2	4.1
인 도	9.9	6.4	5.7	9.7	8.4	8.4
세계 교역량증가율	7.4	2.9	-11.0	11.4	6.3	7.0

자료: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10.7월) 및 「World Economic Outlook」 (2010.10월).

○ 2011년 국내 경제 부문별 경제 전망²⁾

- (2011년 한국 경제 4.3% 성장 예상) 세계 경제 상승세 약화와 내수 경기 둔화 등으로 2011년 경제성장률은 2010년 5.9%에서 4.3%로 하락
- (소비 증가폭 축소) 2011년 민간소비는 고용증가, 처분가능소득 증가 등에도 가계 부채 부담 증가 등에 따라 3%대 후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는 큰 폭으로 둔화) 수출 증가 지속과 신성장 동력 투자 등의 확대요인이 있으나 2010년 높은 투자 증가율에 따라 2011년에는 8%대로 낮아질 전망
- (건설투자는 침체세 지속) 공공부문 토목건설 투자 증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부진세가 이어질 전망

2) 현대경제연구원 (2010. 9. 20.)의 “2011년 국내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 지속 성장을 위한 분수령이 될 2011년” 「경제주평」, 10-36 (통권 416호) 참조.

- (경상수지 흑자 축소) 세계 경제성장 둔화와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고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수입 증가율이 더 높아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될 전망
- (물가는 완만한 상승세) 소비자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있으나 내수 약화, 원화 절상 추세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
- (고용은 양적 지표 개선세 유지) 4%대 초반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됨에 따라 고용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실업률은 하락할 전망
- (시중금리는 소폭 상승) 경제 회복세 지속으로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시중금리도 2010년에 비해 소폭 상승할 전망

< 2011년 한국 경제 전망 >

구 분		2008	2009	2010(E)	2011(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0.2	5.9	4.3	
	민간소비 (%)	1.3	0.2	4.2	3.8	
	건설투자 (%)	-2.8	4.4	0.2	1.5	
	설비투자 (%)	-1.0	-9.1	20.0	8.5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58	427	300	197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	-133	405	400	297
		수출 (억 \$)	4,220	3,635	4,516	5,003
		증감률 (%)	(13.6)	(-13.9)	(24.2)	(10.8)
		수입 (억 \$)	4,353	3,231	4,114	4,707
증감률 (%)	(22.0)	(-25.8)	(27.3)	(14.4)		
소비자물가 상승률 (%)		4.7	2.8	2.9	3.0	
실업률 (%)		3.2	3.6	3.8	3.5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010. 9. 20.)의 “2011년 국내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 지속 성장을 위한 분수령이 될 2011년” 「경제주평」, 10-36 (통권 416호).

주: 대외거래 통계는 2010년중 확정치를 반영하여 기존 전망치와 다소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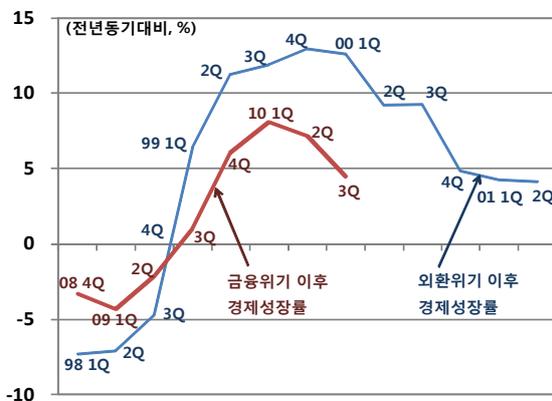
(2) 산업 전망의 특징

○ 상당수 산업 경기는 2010년 호황 국면에서 2011년 둔화(후퇴) 국면으로의 진입이 예상됨

- 이는 국내 산업의 대외(수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교역 증가율이 하락하는 실제의 수요 둔화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2009년)와 이에 대한 기술적 반등(2010년) 이후에 나타나는 통계적인 착시 현상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외환위기 당시 경제성장률은 약 2년 동안 상승하다가 다시 2년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었고, 이번 금융 위기 기간에는 성장률이 1년 동안 상승하다가 현재까지 하락하고 있음
 - 한편,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기간 동안의 제조업생산증가율 상승 기간은 모두 1년 정도이며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의 증가율 하락 속도가 외환위기 당시보다 빠른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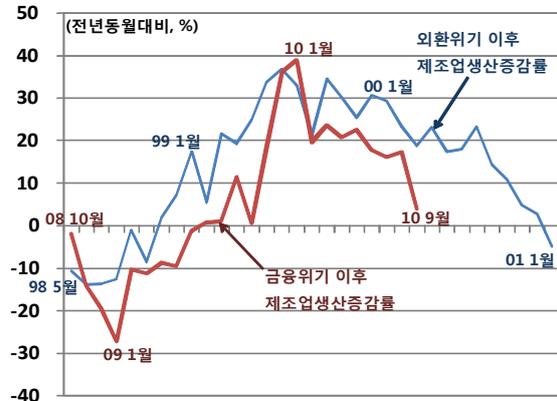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경제성장률 및 제조업생산지수증감률 추이 >

(분기별 경제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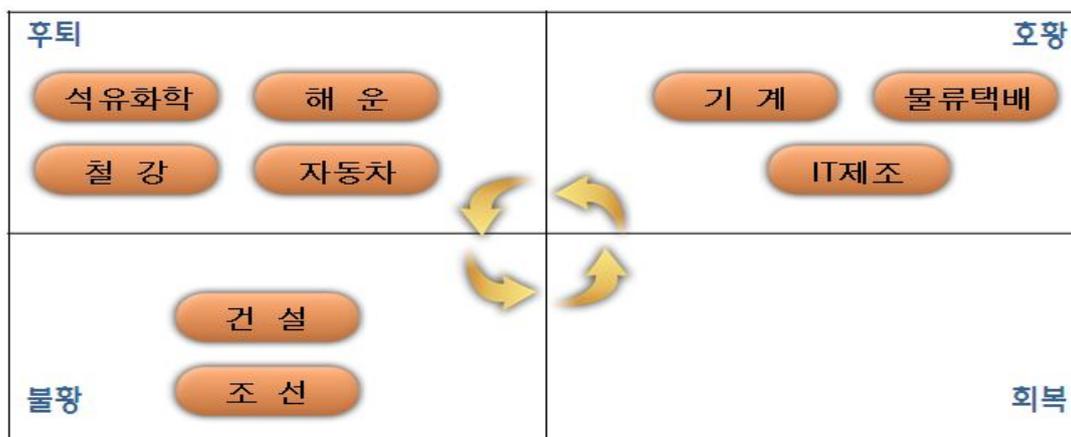
(월별 제조업생산지수증감률)



자료: 통계청 광공업동향조사 통계.

- 이번 금융위기 이후의 전반적인 국내의 경제 회복세에 편승된 업종과 산업 내 구조적 요인으로 장기 침체를 지속하는 업종과의 경기 사이클상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호황 지속 업종) IT제조업, 물류택배업, 기계산업 등이 호황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IT제조업의 경우 2011년 초반까지는 반도체 경기 하장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경기 호조세가 예상됨
 - (경기 둔화 전환 업종) 한편 자동차, 철강, 해운, 석유화학 등 수출 관련 산업들은 세계 경제의 성장 및 교역 둔화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구조적 불황 지속 업종) 건설업 경기는 건축 부문의 수급 문제가 지속되어 부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조선업은 신규 수주가 다소 증가하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기는 하겠지만, 전방 산업의 공급과잉 문제 지속, 중국과의 수주 경쟁 격화로 본격적인 경기 회복 국면으로 진입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산업의 2011년 경기 국면 >



(3) 주요 산업별 전망 및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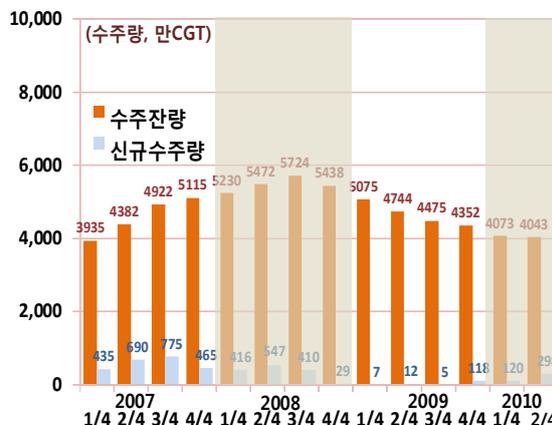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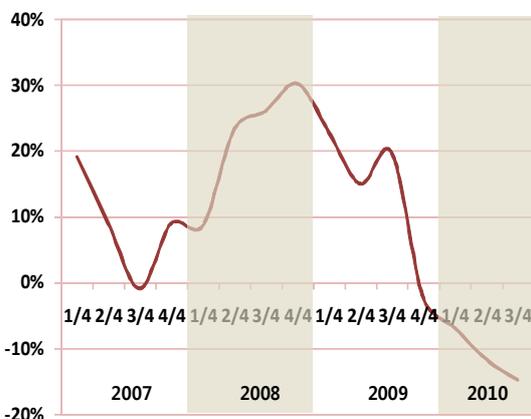
① 조선업

2011년은 중국과의 수주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큰 폭의 수요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 (2010년 현황) 최근 선박수주가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수준이 미약하여 경기 침체 국면을 지속중인 것으로 판단됨
- (생산) 조선업은 2009년 경기 후퇴 국면에서 2010년에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중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 증감률은 하락폭이 2010년 1/4분기 -6.8%, 2/4분기 -11.7%, 3/4분기 -14.8%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다른 업종과 달리 조선업 생산은 2009년 4/4분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는 모습임
- (수주) 조선업의 신규수주는 다소 회복되었으나 수주잔량은 2007년 1/4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임
 - 2010년 2/4분기 신규수주는 1/4분기의 119만 CGT³⁾보다 늘어난 297만 CGT를 기록함
 - 그러나 이 신규수주 규모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4분기의 770만 CGT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경기 회복 징후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한국조선협회 9개 회원사의 수주 잔량은 2010년 2/4분기 4,043만 CGT로 2007년 1/4분기에 기록한 3,935만 CGT 이후 근래에 가장 낮은 수준임

3) 표준화물선 환산 톤수 (Compensated Gross Tonnage).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 < 국내 조선 신규수주량 및 수주잔량 >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한국조선협회.

주: 1) 생산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 신규수주량 및 수주잔량은 9개 회원사 기준.

○ (2011년 전망) 수주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과의 경쟁 격화, 세계 경제의 성장세 약화로 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추월 : 값싼 노동력과 거대한 국내수요를 바탕으로 2010년 1~9월까지 중국은 신규수주 1,073만CGT(한국은 896만CGT)에 수주잔량 5,193만CGT(한국은 4,616만CGT)를 기록하면서 한국을 추월하고 있음
- 수요 약화 가능성 : 선진국을 세계 경제의 성장세 약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신규 수주가 큰 폭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조선업 전망 >

	2009	2010		2011(E)
		상반기	연간(E)	
수주량 (만 CGT)	141 (△90%)	417 (2,155%)	1,350 (857%)	1,400 (4%)
건조량 (만 CGT)	1,226 (△2%)	647 (△7%)	1,270 (4%)	1,300 (2%)
수출규모 (억달러)	425 (4%)	235 (0%)	470 (11%)	480 (2%)

자료: 실적치는 한국조선협회(수주량, 건조량은 회원사 9개 합계 기준),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주요 현안) 조선업은 양극화 심화, 녹색산업에 대한 과잉 투자, 신국제회계 기준 채택에 의한 부채 급증 등의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조선업의 양극화 심화 : 대형조선사들의 실적이 호전된 반면에 중소조선사들의 실적은 악화
 - 중소조선사들의 3분기 수주량은 24만 CGT로 전년 동기에 비해 16.7%감소
 - 전 세계적으로 경기회복의 혜택이 대형조선사들에 집중되고 중소조선사들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벌크선과 유조선부문의 시장 부진으로 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부진했던 것이 원인으로 지적

- 녹색산업에 대한 과잉 투자 : 조선업체들이 2000년대 후반 이후 풍력과 태양광사업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증가시켜 과잉 투자 문제가 존재함
 - 현대중공업은 군산에 3월 국내 최대 풍력발전기 공장을 완공,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은 해외의 관련업체를 인수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최근 거제도지역에 풍력발전기 생산 공장을 건설함
 - 그러나 녹색산업 시장 수요는 대부분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 유지되고 있어 세계 경제 상황이 다시 악화될 경우 업체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신국제회계 기준 채택에 의한 부채 급증 :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국제회계기준) 확정시 장부상 급격한 부채증가가 예상됨
 - IFRS의 회계방식에서 환 헤징을 위한 파생상품의 손실분은 부채증가로 기입되어 조선 업계의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함
 - 단기간 큰 폭의 환율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헤징으로 인해 높아진 부채비율이 자금조달을 막고 차입금 상환에 대한 압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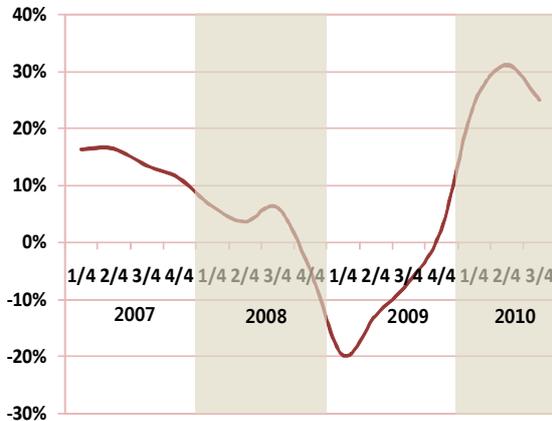
② 기계산업

2011년 신형공업국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위축되었던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기계 산업 경기는 확장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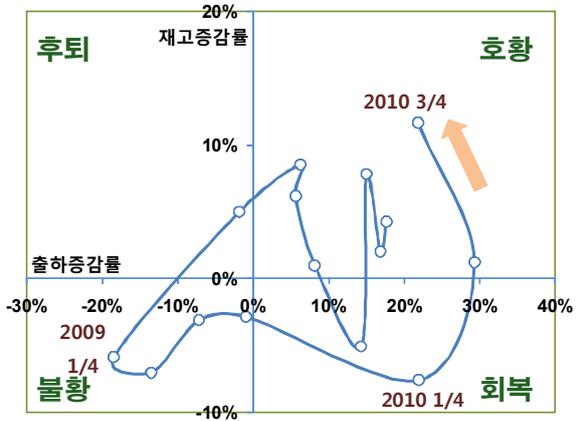
- (2010년 동향) 기계 산업은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 전년도 침체에 따르는 기저 효과 등으로 안정적인 생산 증가세를 기록함
 - (생산) 기계산업은 국내외 기계에 대한 수요 회복세에 힘입어 안정적인 생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기계 생산은 2009년 4/4분기에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0년 3/4분기까지 20%대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음
 - 이는 대체·보완 투자 중심으로 기업 투자 수요가 회복되고 전년도의 과도한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2010년 3/4분기 들어 기저효과가 미약해지면서 생산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함
 - (재고·출하) 그동안 위축되었던 기계 수요가 늘어나면서 단기간에 회복 국면을 거쳐 호황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재고 - 출하 사이클상 기계산업은 2010년 1/4분기에 출하가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는 회복 국면에 진입하였으며,
 - 2/4분기에는 재고와 출하가 동반 증가하는 호황 국면에 진입하여 3/4분기에도 높은 재고·출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 (수출입) 한국산 기계에 대한 해외 수요의 확대, 외국산 기계에 대한 국내 수요 증대로 수출입 모두 증가세를 기록함
 - 2010년 상반기 기계 제품의 수출 및 수입은 각각 63% 증가 및 66% 증가로 큰 폭의 교역 회복세를 나타냄

<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1년 전망) 신흥공업국들을 중심으로 기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산업내 업종별로는 경기 국면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기계 생산 증가 : 그동안 금융위기로 위축된 생산설비 능력 확충 수요의 영향으로 기계 생산은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업종 내 부문별 격차 발생 : 생산설비 및 운수 관련 기계 업종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이나, 건설 관련 기계 업종은 전방산업의 침체로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기계산업 전망 >

구 분	2009	2010		2011(E)
		상반기	연간(E)	
생 산(조원)	72 (△9%)	38 (15%)	80 (11%)	90 (13%)
수 출(억불)	285 (△18%)	177 (63%)	330 (16%)	350 (6%)
수 입(억불)	262 (△13%)	159 (66%)	314 (20%)	340 (8%)

자료: 실적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주요 현안) 2011년 기계 산업의 주요 현안으로는 대만-중국간 ECFA 체결로 인한 중국시장 점유율 하락, 중국의 기계산업 국산화 정책에 따른 대중국 수출 둔화, 한-EU FTA 발효로 인한 수출 확대 등이 예상된다
- 대만-중국간 ECFA 체결로 인한 중국시장 점유율 하락 : 최근 대만과 중국이 ECFA를 체결하면서 국산 기기의 중국 시장 내 시장점유율 하락이 우려됨
 - 최근 대만과 중국은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경제협력기본협정)를 체결하고 일부품목에 대해 2년 내로 관세를 폐지할 계획
 - 이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대만 기기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반면 대만과 경쟁이 치열한 품목 위주로 국산 기기의 시장 점유율 하락이 우려됨
 - 특히 품질 경쟁력 제고 등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도 한국의 대중국 기계 수출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의 기계산업 국산화 정책에 따른 대중국 수출 둔화 : 한국 기계산업의 최대시장인 중국 내 기계산업의 국산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대중국 기계 수출 비중이 하락할 우려가 고조됨
 - 2009년을 기준으로 한국 기계산업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20%를 차지할 만큼 중국은 한국의 최대 기계산업 수출 시장임
 - 한편 중국 정부의 자국 산업 부흥 정책 등에 힘입어 중국 기계류 업체들의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외자기업의 매출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이에 일부 첨단 기계를 제외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둔화될 우려가 높아짐
 - 한-EU FTA 발효로 인한 수출 확대 : 2011년부터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기계산업의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친환경 기기 등의 수요 증가가 기대됨
 - EU는 중국 다음으로 큰 한국의 교역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한-EU FTA가 발효되면 기계산업의 수출입활로가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한-EU FTA의 발효로 가전, 섬유, 자동차 등의 산업 수출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기계설비 투자 및 친환경 설비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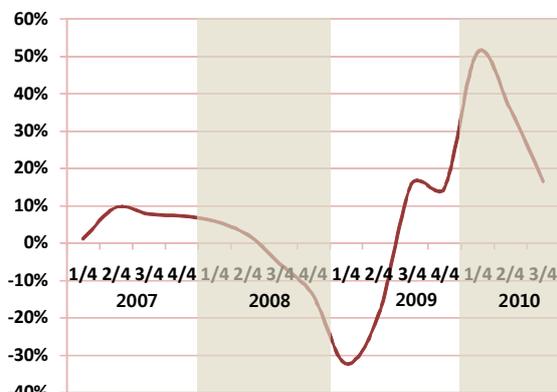
③ 자동차산업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 모두 수출은 건실한 성장세가 전망되나 내수 시장은 중소형 수입차의 시장 공략 강화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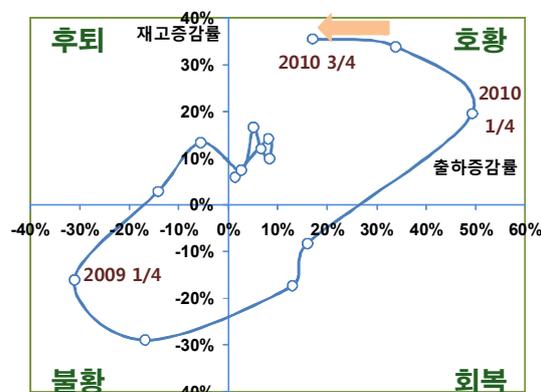
- (2010년 현황) 상반기에는 경기 회복과 신차 효과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했으나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
 - (생산) 국내외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큰 폭의 생산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증가율 자체는 둔화되는 모습임
 - 자동차산업 생산은 2010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50% 이상의 증가 폭을 기록함
 - 다만 2010년 2/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5.7% 증가, 2010년 3/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에 그치면서 증가폭 자체는 점차 하락하고 있음
 - (재고-출하) 2010년 1/4분기에는 재고와 출하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호황 국면에 진입했으나 2/4분기부터는 출하 증가세가 약화되는 모습임
 - 2010년 1/4분기 이후 재고와 출하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호황 국면에 진입함
 - 2010년 2/4분기 이후 출하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고는 있으나 재고-출하 사이클 상 여전히 호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시장수요) 국내외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과 내수가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다만 최근에 들어 내수 시장 수요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임
 - 국내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상반기에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대외 여건 불안과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둔화
 - 중국,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의 판매 호조와 경쟁국 기업들의 상대적 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1년 전망) 내수와 수출 모두 전반적으로 견실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글로벌 경기의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될 전망

- 내수는 소폭 증가 : 국내 경제의 성장세 둔화, 정책 효과 소멸 등의 영향으로 내수 판매는 소폭 증가에 그치고 수입차 시장의 경쟁은 한층 격화될 전망
- 수출은 증가세 유지 : 선진 시장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나, 신흥시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 확대가 예상되어 전반적인 자동차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산업 전망 >

구 분	2009	2010		2011(E)
		상반기	연간(E)	
생 산 (만대)	351 (△9%)	210 (37%)	415 (18%)	440 (6%)
내 수 (만대)	139 (21%)	71 (15%)	145 (4%)	150 (3%)
수 출 (만대)	215 (△20%)	134 (43%)	270 (26%)	290 (8%)
수 입 (만대)	6 (△1%)	4 (45%)	9 (48%)	11 (22%)

자료: 실적치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내수는 국산차판매 기준, 수출은 통관 기준, 수입차는 신규 등록 기준.

○ (주요 현안) 글로벌 생산체제의 최적화 추진, 전기자동차 상용화 확대, 수입차의 내수 공략 강화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

- **글로벌 생산체제의 최적화 추진** : 주요 글로벌 업체들은 제품 라인의 재구축과 신흥 시장의 현지 생산 확대 등 생산체제의 최적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 주요 업체들은 현지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여 맞춤형 제품의 현지 생산 라인 구축과 영업력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도요타, GM, 포드 등 글로벌 업체들은 최근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의 수요 증가에 발맞춰 현지 생산 능력을 대폭 확장할 계획임
 - 르노-닛산은 인도의 판매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지 부품 조달을 늘리기로 하고, 피아트는 유럽과 신흥 시장에서의 소형차 생산을 확대할 계획임

- **전기자동차 상용화 확대** : 친환경차의 개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전기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주요 업체들의 시장 선점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배터리 기술의 혁신에 힘입어 전기자동차의 시장 확대를 위한 주요 업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최근 독일의 DBM에너지는 한번 충전에 375마일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를 개발하여 아우디A2 차종에 적용한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발표함
 - 중국은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2020년까지 1,000억 위안을 투입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 충전소 설치 확대와 핵심기술 개발을 강화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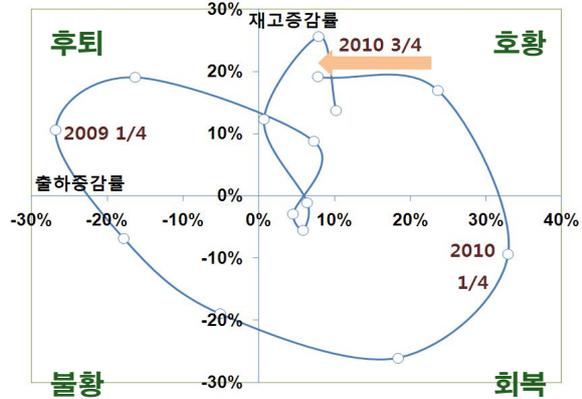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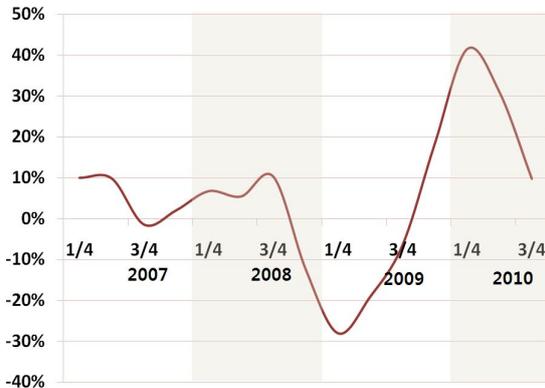
- **수입차의 내수 공략 강화** : 주요 글로벌 경쟁업체들은 국내 경기의 견실한 회복세에 따라 다양한 신차종으로 국내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수입차 업체들은 다양한 수요층에 대응한 차종 확대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내수 시장의 점유율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GM, 벤츨리, 혼다, 닛산 등은 친환경 차종 및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구매 조건의 고객 편의를 확대하고 있음
 - 한-EU FTA의 공식 서명을 계기로 유럽산 자동차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이므로 품질과 디자인뿐 아니라 가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강화될 것임

④ 철강산업

2011년 건설, 조선 등 주요 수요 산업의 경기 상황도 낙관하기 어려워 보여 철강재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 (2010년 현황) 철강산업은 국내외 경제 회복의 영향으로 수요 확대, 생산량 증가의 호황을 보였지만 하반기 이후 확연하게 둔화되는 모습임
 - (생산) 생산은 2010년 1/4분기에 빠른 속도로 회복국면에 진입하였으나 3/4분기 이후의 생산 증가세는 둔화되고 것으로 분석됨
 - 철강 생산은 2009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8% 감소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폭을 줄여 4/4분기 이후에는 증가세를 지속중임
 - 다만 2010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41.5%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2/4분기 31.0%, 3/4분기 9.8%로 증가 속도는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임
 - (재고-출하) 재고-출하 사이클 상에서 재고 증가세는 정체된 한편, 출하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단기간 내 호황 국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음
 -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인 철강산업의 재고 증감률은 2/4분기 이후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
 - 한편, 출하 증감률은 2010년 4/4분기를 기점으로 2분기 연속 감소를 기록하여 2010년 3/4분기는 8% 수준에 그침
 - (수출입) 공급 측면에서 국내 철강 생산 능력이 크게 확대되어 수입량 증가세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임
 - 2010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9%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하반기 증가율은 신흥국의 수요 감소에 따라 13% 내외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 수입 측면에서는 국내 생산 능력 확대 및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상반기 증가율 53.2%과 비교해 하반기는 오히려 8~9%대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임

< 1차 철강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1년 전망) 건설, 조선 등 주요 수요 산업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철강재 수요 증가는 제한적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철강 수요의 증가세 둔화 : 건설, 조선 등 주요 수요 산업의 부진이 예상되고 원화 강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가능성도 있어 국내산 철강 제품에 대한 제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됨
- 공급량 조정: 생산량 증대 경쟁을 거친 국내외 철강 산업은 2011년에는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공급량 증가세 역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철강 산업 전망 >

(단위: 만 톤)

구 분	2009	2010		2011(E)
		상반기(E)	연간(E)	
총수요	660 (△17%)	385 (30%)	770 (17%)	800 (4%)
내수	454 (△23%)	269 (34%)	530 (17%)	550 (4%)
수출	205 (△1%)	116 (21%)	240 (17%)	250 (4%)
총공급	775 (△17%)	459 (35%)	900 (16%)	920 (2%)
생산	569 (△12%)	328 (29%)	670 (18%)	690 (3%)
수입	206 (△29%)	131 (53%)	230 (12%)	230 (0%)

자료: 2009년 실적치 및 2010년 상반기 잠정치는 한국철강협회, 2010년 연간 및 2011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수입량에는 핫코일, 반제품 등 철강재 소재가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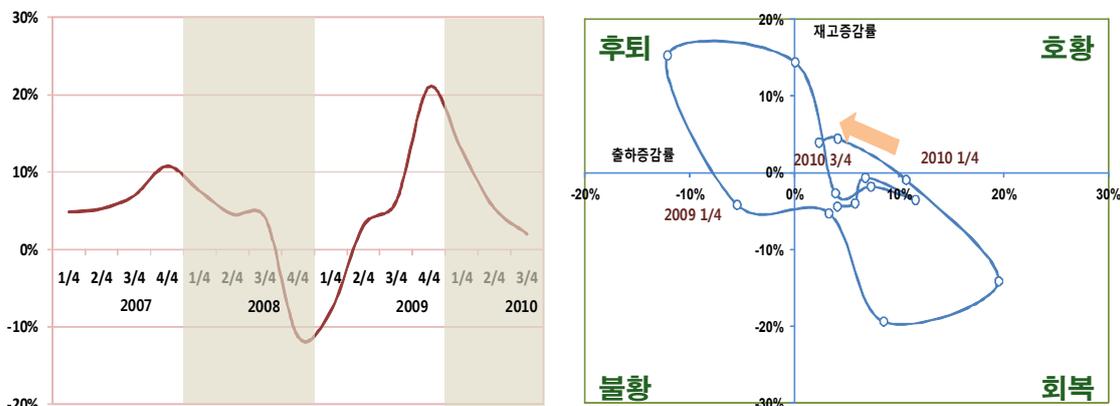
- (주요 현안) 철강 산업은 중국발 산업 구조조정의 양면, 철광석 가격 안정 기대, 원화 강세에 따른 채산성 상승 등이 주요 현안으로 작용 전망임
-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의 양면 : 중국의 철강 산업 구조조정은 한국에게는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세계 경제 침체시 한국 철강 산업에도 구조조정의 압력이 생길 수 있음
 -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국인 중국에서 정부 주도의 철강 산업 구조조정 및 생산 시설 폐쇄를 통한 과잉 공급 억제 정책을 강화중임
 - 이는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여 철강 수요가 확대될 경우 한국을 비롯한 경쟁 국가들에게 매출 증가의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 그러나 반대로 세계 경제가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위기를 다시 맞을 경우 생산 능력을 증대시킨 국내 철강 산업의 과잉 설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철광석 가격 안정 기대 :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에 의한 수요 둔화, 철광석 공급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제 철광석 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전망
 - 2010년 9월 누적기준으로 세계 조강 생산량의 45%를 차지하는 중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국제 철광석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
 - 2010년 계속된 발레, 리오틴토, BHP 빌리튼 등 원재료 공급업체들 간의 생산 시설 확장 경쟁의 영향으로 2011년의 공급량 역시 안정세가 예상됨
 - 이 같은 철광석 수급 상황에 따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급 계약 방식의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 전환이 현실화되더라도 가격은 안정세가 전망됨
 - 원화 강세에 따른 채산성 상승 : 내수 시장 비중이 높은 국내 철강 제조업체들에게는 원화 강세에 따른 제조 원가 하락 효과가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수요 위축 효과를 상쇄하여 득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원화 강세는 한국산 제품의 수출 가격이 상승하여 세계 시장점유율 확대 기회가 줄어든다는 부정적 측면이 존재함
 - 그러나 국내 철강 산업의 내수 시장 비중이 높아 제조 원가가 하락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⑤ 석유화학산업

전방산업 경기 위축에 따르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내수 증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석유화학산업의 생산은 2010년보다 개선될 전망

- (2010년 현황)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경기 악화로 석유화학산업의 호황은 둔화됨
 - (생산) 생산은 2009년 2/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2010년 1/4분기 생산 증가율 자체는 둔화되고 있음
 - 석유화학산업 생산은 다른 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인 2009년 2/4분기에 증가세로 전환되며 회복 국면에 진입함
 - 그러나, 2010년 1/4분기 이후 생산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기 회복세가 악화될 우려가 존재함
 - (재고-출하) 석유화학산업은 호황기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나 출하 증가율 자체가 미약하여 경기 후퇴 국면으로 진입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2010년 2/4분기 이후 재고와 출하가 증가하는 호황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2010년 3/4분기 재고 증가 및 출하 증가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어 경기 후퇴 국면으로의 진입이 우려됨
 - (수출 경기) 2009년의 수출 호황으로 인한 역기저효과와 신규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초과 공급으로 수출 경기는 악화됨
 - 중국과 중동의 신규 설비 가동 본격화로 한국의 석유화학 제품의 對 중국 및 對 중동 수출 물량은 증가하지 못함
 - 더욱이 2009년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10년 석유화학 수출은 전년대비 증가하지 못하는 역기저효과가 발생함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1년 전망) 내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초과 공급 해소에 따르는 수출 경기 회복으로 생산은 2010년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 내수 경기 둔화 : 자동차, IT 산업 등 전방산업의 수출 경기 둔화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 역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 수출 경기 회복 : 신규 공급 물량의 감소와 함께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성장 지속으로 수출 경기의 회복이 예상됨

< 석유화학산업 전망 >

구 분	2009	2010(E)		2011(E)
		상반기	하반기	
생 산 (만톤)	2,086.9 (7%)	1,058.6 (3.8%)	2,150 (3%)	2,250 (5%)
수 출 (만톤)	1,211.7 (12%)	590.1 (△4%)	1,200 (△1%)	1,250 (4%)
수 입 (만톤)	77.6 (6%)	39.9 (10%)	90 (16%)	100 (11%)
내 수 (만톤)	952.8 (2%)	508.4 (15%)	1,040 (9%)	1,100 (6%)

자료: 실적치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석유화학 산업 전망은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합으로 산출함.

○ (주요 현안) 한·EU FTA에 따른 교역 확대, 온실가스 감축 관련제도 시행 본격화,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등이 이슈로 부각될 전망

- 한·EU FTA 발효로 인한 교역 확대 : 수출 시장이 확대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EU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수입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관세 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로 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석유화학제품의 EU 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반면, EU의 석유화학산업은 이미 REACH 등 환경 규제를 통해 비관세 장벽이 높고 한국보다 경쟁 우위에 있어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음

-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제도 시행 본격화 : 친환경 화학제품 개발과 함께 에너지 효율성 제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12월 멕시코시티 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 발리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1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큼
 - 경제 전반의 생산 과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관리로 인해 친환경 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석유화학 산업 내에서도 생산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임

-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 원화 강세는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지만 반대로 원료의 수입 가격을 하락시킨다는 장점이 있음
 - 원화 강세는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또한 원화 환산 수출 대금이 감소하여 수출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함
 - 반면, 원화환산 원유도입단가를 낮추기 때문에 업종내 사용되는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국의 경우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⑥ 해운업

2011년 해운 경기는 교역 증가세의 둔화, 초과 공급 압력 지속 등으로 빠른 업종 성장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현황) 세계 경제와 교역 회복의 영향으로 연중 전반적인 회복 기조가 지속됨

- (생산) 외항운송업 생산지수로 살펴본 해운업 경기는 세계 교역의 확대에 힘입어 2010년 1/4분기 시작된 경기확장세를 계속 이어나감

· 외항운송업 생산지수는 2010년 1/4분기 16.0%로 회복한 이후 그 증가폭을 계속 늘려나가 3/4분기 27.4%를 기록하며 빠르게 경기가 확장중임

- (부문별 용선지수 동향)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업종 내 공급 과다 문제로 상승세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임

· 벌크선 BDI는 5월 26일 4,209까지 도달한 후 7월 15일 1,700까지 하락하기도 하였고 다시 회복세를 보여 11월 4일에 2,510까지 상승함

· 컨테이너선 HRI는 9월 29일 2010년 최고치인 735 도달 후 다소 하락하여 11월 3일 696.7를 기록함

· 유조선 AG-동아시아항로운임지수(WS)는 1월 29일 120.0까지 도달한 후 등락세를 보이면서 10월 29일 60에 이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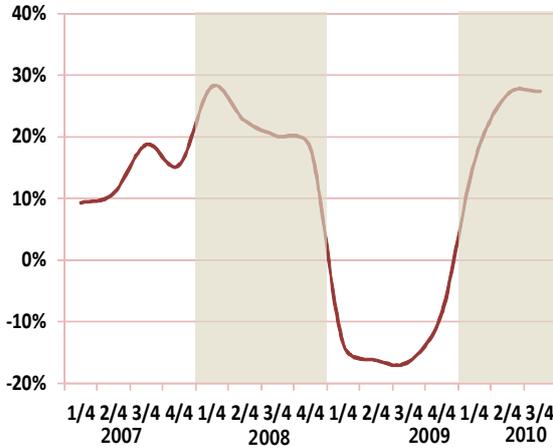
- (컨테이너 물동량) 9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152만 TEU로 5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9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152만 4,866 TEU⁴⁾로 전년 동월인 2009년 9월의 142만 7,376TEU에 비해 약 6.8%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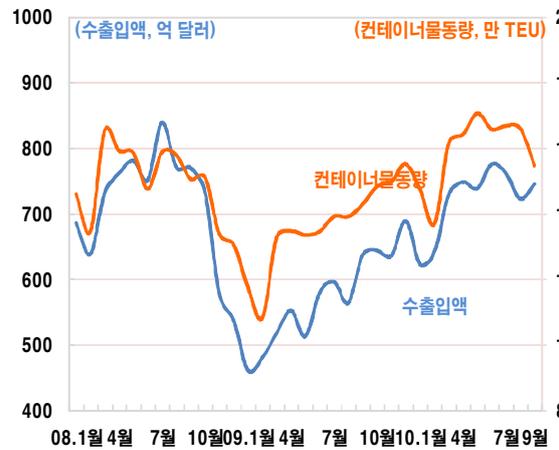
· 2010년 9월의 수출입액은 758억 9천만 달러를 기록 (9월까지 수출입총액은 6,584억 6천 6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32.4% 증가)

4)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는 선박의 용적을 나타내는 단위이며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의미.

< 외항운송업 생산지수 증감률 >



< 컨테이너물동량 및 수출입액 추이 >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국토해양부.
 주: 생산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1년 전망) 교역 증가세의 둔화, 초과 공급 압력 등으로 업종 성장세는 정체될 것으로 전망됨

- 물동량 수요 증가세 둔화 : 수요 측면에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해운 물동량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초과공급 압력 상존 : 특히, 선복량(시장 공급) 과다 문제도 지속될 것으로 물동량/선복량 비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해운지수 전망 >

구 분	2009	2010		2011(E)
		상반기	연간(E)	
벌크선 [BDI (1985=1,000)]	2,617 (△59%)	3,167 (50%)	2,800 (7%)	2,800 (0%)
컨테이너선 [HRI (1997=1,000)]	366 (△68%)	419 (8%)	580 (58%)	650 (12%)
유조선 [AG-동아시아(WS)]	42 (△69%)	87 (128%)	70 (67%)	80 (14%)

자료: 실적치는 해양수산개발원,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위 수치들은 기간중 평균치임.

○ (주요 현안) 해운 산업은 IMO의 온실가스 규제 시작, 한-EU FTA로 인한 시장 확대, 얼라이언스 시대의 도래 등의 현안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됨

- 온실가스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시작 : 2011년은 IMO가 그동안 논의해온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됨
 - IMO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개정하여 2011년 열리는 제6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이후 온실가스 규제안 승인 및 채택에 관해 논의할 예정임
 - 화물수송 1톤·1마일 당 탄소배출량 허용기준으로 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강제화하여 신조선에 적용할 계획임
 - 일정 크기 이상(예들 들어 400GT)의 선박에 대해서는 연간 에너지효율관리계획을 수립·시행을 의무화할 예정임

- 한-EU FTA체결로 인한 해운 시장 확대 : 2010년 10월 6일 서명하고 2011년 7월 1일 잠정발효가 예정되어 있는 한-EU FTA는 해운시장의 확대를 의미함
 -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15년간 한국의 대(對)EU수출은 25.3억 달러, EU로부터의 수입은 21.7억 달러증가 예측됨
 - 지구 온난화의 긍정적인 효과중 하나로 북극항로가 개척될 경우 한국과 EU의 거리는 40%, 소요시간은 45% 단축 전망됨
 - 선박 한 척 당 최대 연간 1,22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여 해운시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 해운동맹의 해체와 얼라이언스 시대의 도래 : 2008년 EU의 해운동맹에 대한 '반독점법 면제특권' 해제로 해운동맹의 해체가 시작됨
 - 세계의 주요 해운동맹인 FEFC가 2008년에 공식해체되었고 TSA는 미국의 '2010 신 해운법'에 따라 해체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됨
 - 일종의 카르텔인 해운동맹 대신에 전 세계에 걸쳐 해상 및 육상물류 서비스망을 구축에 중점을 두는 얼라이언스로 무게중심이 이동중임
 - 전 세계적으로 항로중심에서 선사별 협력체제로 바뀌면서 새로운 방식의 경영전략이 요구됨

⑦ 물류택배업

2011년 택배 산업은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과당 경쟁 구조가 지속되어 수익성 개선이 한층 요구될 전망

○ (2010년 현황) 최근 업종 생산 지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시장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호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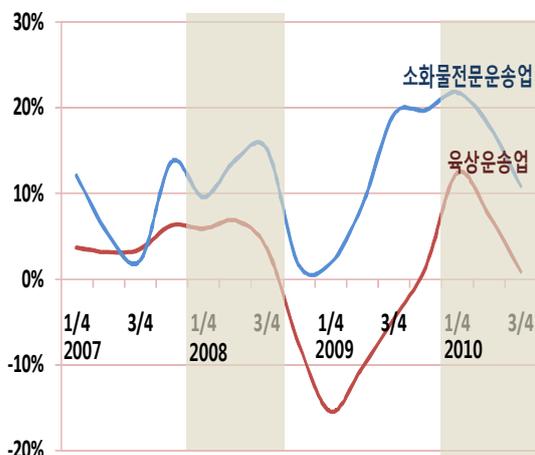
- (생산) 육상운송업 생산지수와 소화물 전문운송업 생산지수 모두 역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하락하고 있으나 시장 상황 상 호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육상운송업의 생산지수는 2009년 4/4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2010년 1/4분기 정점을 보인 후 3/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0.9% 증가에 그침
- 소화물전문운송업(택배) 생산지수도 2010년 1/4분기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으나, 5분기 연속해 전년동기대비 두 자릿수의 증감률을 유지하고 있어 경기 호황세를 지속중임

- (시장수요) 경기 회복과 맞물려 사이버쇼핑몰을 비롯한 모든 소매업체가 경기 호황을 지속중임

- 사이버쇼핑몰판매액지수는 2008년 하반기 리먼브라더스 사태 충격으로 일시적인 하락을 보였지만 2009년부터 전년동기대비 20% 전후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호황을 이어가고 있음
- 전반적인 소비 동향을 파악해 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2010년 다소 둔화 기미를 보였으나 3/4분기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이에 따라 2010년 상반기 택배 물량은 전년동기대비 약 12%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0년 연간 택배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3.3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 육상·소화물전문 운송업 생산지수 증감률 >



<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 >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주: 업종 생산지수, 판매액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1년 전망)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나 경쟁 심화 구조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시장규모 증가세 지속: 2011년 택배시장규모는 전년대비 약 13% 증가한 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공급 측면: 시장 확대 및 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규모를 대형화하고, 차별적이면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물류(택배)업 전망 >

(단위: 조원)

구 분	2009	2010		2011(E)
		상반기	연간(E)	
택배시장 규모 (전년대비증감률)	2.9 (12%)	1.5 (19%)	3.3 (15%)	3.8 (13%)

자료: 실적치는 물류신문사,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 (주요 현안) 정부의 물류산업 선진화 추진, 외형 경쟁 및 대기업의 시장 진출 등으로 시장 및 경쟁 전략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물류산업 선진화 추진 : 정부는 녹색물류 정책, 우수업체 인증, 택배업 육성 등 물류 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중임
 -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녹색물류인증제 도입 등 녹색물류 과제와 국제물류 주선 우수 업체 인증 등을 담은 개정안 추진중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택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물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토대로서 택배업 정의, 요금인가제 도입, 택배 차량 증차, 택배 서비스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중
 - 상기 법들의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제도 및 업체 준비를 통해 물류택배업의 시장 및 경쟁 구조에 큰 변혁이 예상됨

- 대기업의 물류업 진출로 외형 경쟁 심화 : 일부 대형업체간 점유율 차이가 크지 않은 과점이 형성되면서 수익성보다 외형 성장에 더욱 치중할 것으로 예상
 -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단가 하락과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이 가열
 - *단가 추이(HRI 추정) : '04년 4,400원 → '06년 2,904원 → '10년.상 2,595원
 - 대형업체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터미널 신증축 등 시설확충이 확대되고, 중견업체를 대상으로 한 M&A가 예상
 - 여기에 새로이 대기업을 비롯한 대형업체들의 물류택배업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어 업계 순위구도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대상의 물류 사업 전개 심화 :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대형업체들은 글로벌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 업체들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신흥개발국 시장을 대상으로 국제특송서비스, 중량화물운송서비스, 글로벌 3자 물류 등을 제공
 -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운, 항공, 육운 등의 종합물류사업을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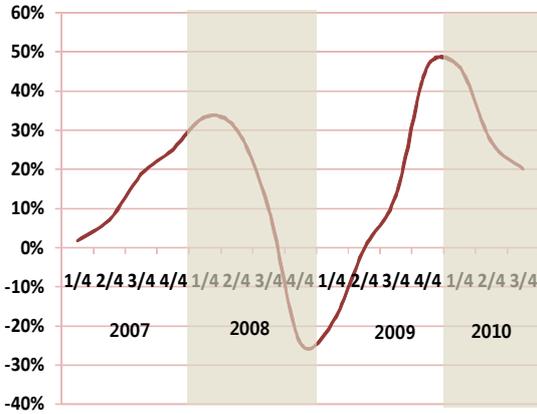
⑧ IT제조업

2011년 IT제조업은 완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반도체 경기도 2011년 2분기 이후 재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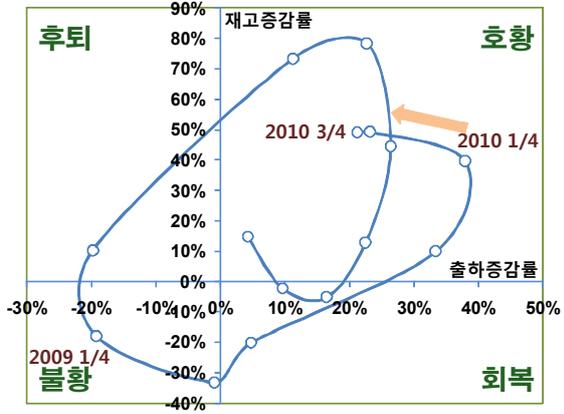
- (2010년 현황) IT제조업은 경기 호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호황의 강도는 다소 약화되는 모습임
 - (생산) 제조업 ICT 생산지수로 살펴본 결과 IT제조업은 경기 회복 국면을 지나 호황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나 생산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음
 - 제조업 ICT 생산지수는 2008년 4/4분기와 2009년 1/4분기에 감소를 기록한 이후 2009년 2/4분기부터 증가폭을 확대하고 있음
 - 제조업 ICT 생산지수는 2009년 4/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약 5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 1/4분기 이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재고-출하) 재고-출하 사이클 상 2009년 4/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호황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경기 호조세는 다소 퇴조하는 징후가 나타남
 - IT제조업은 2009년 4/4분기 이후 출하증가세가 높아지는 가운데 재고가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서는 전형적인 호황 국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2010년 2/4분기 이후 출하증감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호황 국면의 강도 자체는 약화되는 모습임
 - (업종별 경기) 정보통신 완제품의 수요는 스마트 폰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경기는 2010년 하반기에 하락세를 시현함
 - 스마트폰 수요 대폭 증가 : 스마트폰이 휴대폰의 신규 교체 수요를 자극하면서 휴대폰 판매가 확대되고 있음
 - 반도체와 패널 가격 하락 반전 : 상반기 지속적인 가격 상승 기조를 이어온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의 가격이 하반기 들어서 하락 반전하고 있음

< IT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기준.

○ (2011년 전망) 스마트폰 시장 확대 등으로 완제품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반도체 경기도 2011년 2분기 이후 재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됨

- 완제품 수요 지속 증가 : 완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신규 진입업체와 기존 업체 간의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됨
- 반도체 경기 연초 하락후 안정 : 내년 1분기까지 D램 가격 하락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2분기 이후에 다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 IT제조업 전망 >

구 분	2009	2010		2011(E)
		상반기	연간(E)	
생산 (조 원)	227 (1%)	141 (34%)	300 (32%)	340 (13%)
수출 (억 달러)	1,210 (△8%)	728 (38%)	1,500 (24%)	1,800 (20%)
수입 (억 달러)	620 (△19%)	354 (53%)	700 (13%)	800 (14%)

자료: 실적치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IT 제조 산업은 반도체 등 부품산업과 정보통신, 컴퓨터 등 완제품 산업을 합친 것임.

○ (주요 현안) 스마트폰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고 반도체는 공급과잉으로 가파른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격화 : 올해 말 출시되는 Windows Phone 7이 스마트폰 OS 경쟁에 가세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
 - 2010년 상반기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9.7% 증가한 1억 1,600만 대로 늘어나면서 스마트폰 비중이 18.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Windows Phone 7이 경쟁에 가세하면서 iPhone의 시장주도권이 위협받고 있음
 - 삼성, LG 등 국내 업체들은 시장 성장 초기에는 주도권을 잡지 못했지만 2011년에는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반도체 가격의 완만한 회복 : PC 수요가 예상만큼 늘지 않아 폭락했던 반도체 가격은 물량의 수급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내년 2분기부터 완만한 회복이 예상됨
 - PC 수요가 예상외로 부진하면서 10월의 반도체 평균가격은 지난 7월 대비 35% 가까이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 전망
 - 연말에는 PC용 램 가격이 1.3달러 미만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이 모두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
 - 설비 투자 감축, 라인 운영 축소 등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 축소 노력으로 내년 2분기부터 반도체 가격의 완만한 회복이 예상됨

- 차별화된 디스플레이 채택 강화 : H/W의 차별화를 꾀하는 전자업체들이 AMOLED와 같은 차별화된 디스플레이 채택을 강화하면서 공급 부족 발생
 - S/W 측면에서 애플이 안드로이드 진영을 압도하면서 삼성, LG와 같은 휴대폰 업체들은 H/W의 차별화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고성능 디스플레이를 채택
 - 삼성전자는 Smart TV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3D AMOLED를 채택한 TV를 2012년까지 출시할 예정임
 - 따라서 AMOLED는 시장조사기관의 전망과는 다르게 현재 심각한 공급 부족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급초과는 3년 후이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⑨ 건설업

2011년 공공·토목 부문 수주는 전년도 규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건축 부문 수주는 비주택 부문의 회복으로 소폭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0년 현황) 공공 및 토목 부문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 및 건축 경기는 소폭 개선된 모습을 나타냄

- (건설 기성) 최근 건설 경기 동향을 나타내 주는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공공 부문에서는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건축 부문에서는 침체를 나타냄

- 토목 부문 건설기성액 증가율이 2010년 2/4분기 이후 다시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남
- 그러나 건축 부문 건설기성액은 주택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2/4분기 이후 다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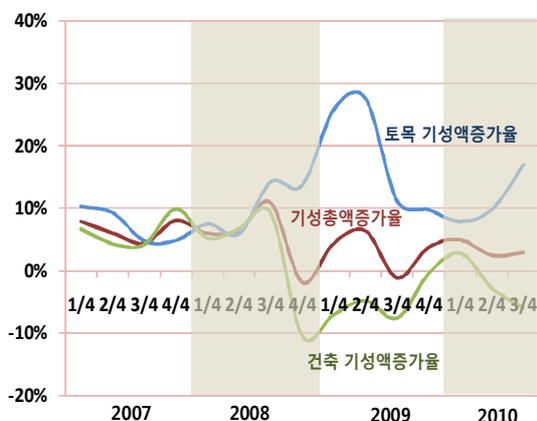
- (건설 수주) 건설수주액 증가율은 공공·토목 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민간·건축 부문이 기저효과로 소폭 반등하는 양상임

- 공공·토목 부문 수주는 경기부양책으로 사용되었던 SOC 예산이 감축되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건축 부문 수주는 전년도의 부진에 따르는 기저효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증가폭은 미약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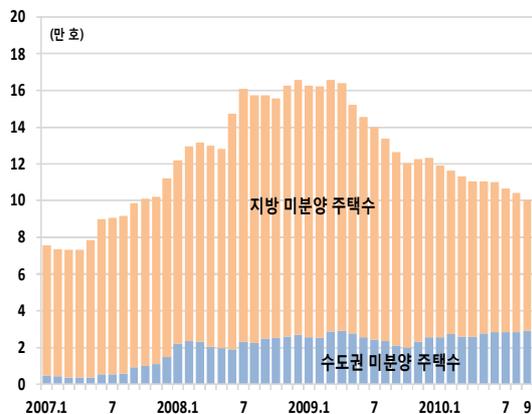
- (미분양 주택 시장) 민간·건축 부문 경기 침체를 유발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문제가 지속중인 것으로 판단됨

- 전체 미분양 주택수는 2009년 3월 16만여호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0년 9월 현재 약 10만여호로 감소함
- 단,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며, 지방 미분양 감소 추세도 세제지원 확대, 공기업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택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임

< 공종별 건설기성액 증감률 >



< 미분양주택수 >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국토해양부.
 주: 기성액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1년 전망) 2011년 공공부문 건설수주는 전년 규모로 예상되며 민간 및 건축 부문 수주는 비주택 건설 부문은 소폭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공공·토목 부문 침체 지속 : 공공 부문은 계속 사업에 의한 지속적인 수요는 존재하나, SOC 예산 감축으로 큰 폭의 수주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 민간·건축 부문 소폭 개선 : 주택 경기 침체 속에서 관공서, 플랜트 공사 등 비주택 부문의 상대적 호조의 영향으로 민간·건축 부문은 감소세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됨

< 건설업 전망 (건설수주액) >

(단위 : 조 원)

주체별	공종별	2009		2010		2011(E)			
		수액	증감률	상반기	연간(E)	수액			
공공	공공	51	(61%)	14	(Δ 47%)	40	(Δ 22%)	41	(3%)
	민간	52	(Δ 22%)	25	(55%)	61	(17%)	65	(9%)
민간	토목	48	(42%)	15	(Δ 38%)	42	(Δ 13%)	42	(0%)
	건축	59	(Δ 16%)	26	(31%)	63	(7%)	65	(3%)
전체		107	(3%)	41	(Δ 7%)	105	(Δ 2%)	107	(2%)

자료: 실적치는 통계청,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주체별 수주에서 국내외국기관 및 민자 실적을 제외하였으며,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주요 현안) 향후 건설업에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지표의 악화, 원자재 및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건설업의 수익성 악화, 수도권 중심의 미분양 주택 문제 지속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회계기준 도입 : 2011년 상장업체들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회계투명성은 제고될 것으로 보이나 회계처리방식 변화에 의한 재무지표의 악화가 예상됨
 - 자본시장의 글로벌화 등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요구되고 OECD 국가들의 80%가 IFRS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회계기준의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에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2011년에는 전면 도입하게 됨
 -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나 회계처리 방식의 변화로 부채비율 상승, 영업이익률 감소 등 재무지표의 악화가 우려됨
-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건설 자재 가격 인상 : 국제원자재가 상승으로 건설자재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여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됨
 - 원자재 가격의 인상에 따라 철강 등 건설자재 가격으로 전이되어 건설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 경우 건설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특히 자금난이 심각한 건설사의 퇴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미분양 문제의 지속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 문제가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2009년 3월 16만 6,000여호에서 2010년 9월 현재 약 10만여호로 감소하였으나, 2005년 12월 5만 7,000여호, 2006년 12월 기준 7만 3,000여호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특히, 최근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2009년 12월 2만 5,000여호에서 2010년 9월 2만 9,000여호로 약 4,000여호 증가한 상황임
 - 나아가 수도권의 보금자리주택 및 2기 신도시 분양 계획 등으로 수도권 미분양 주택의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움⁵⁾

5) 2009년 '9.19 주택공급정책'에서 2018년 까지 수도권에 300만호, 지방에 20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중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신규 분양아파트보다 15%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공급하기로 계획, 연간 약 15만호의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예상됨.

3. 시사점

첫째, 세계 경제 성장세 약화로 예상되는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비하여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되는 2010년과 달리 2011년 상당수 업종 경기가 국내외 수요 정체로 인해 둔화 또는 후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위축되는 시장 수요로 기업들의 재고가 늘고 잉여 생산 능력이 높아져 경영 악화가 예상됨
- 나아가 일부 산업의 경우 기업의 생존이 달린 '치킨 게임'이 펼쳐질 가능성도 존재함
- 이러한 악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용절감 노력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R&D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력 확보를 통해 생존 경쟁에 대비해야 할 것임

둘째, FTA 체결로 접근성이 높아진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하다.

- 향후 선진국 시장에서의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있어 수출 경기가 부진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2011년 7월부터 발효되는 한-EU FTA로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기회를 충분히 살려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유럽의 통상 정책, 유럽 시장의 동향 등에 대한 민·관 및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공조화가 체계화되어야 함

- 특히 그동안 유럽 지역 진출에 소홀했던 기업들은 이 지역에 대한 영업망 확대와 인력 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또한 수년간 지지부진한 한-미 FTA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교역 확대를 도모해야 함
- 물론 이와 동시에 우리 수출 시장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에 대한 수출 확대 노력도 지속해야 함

셋째, 저탄소 - 녹색 성장 시대에 주요국들의 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한 기업의 생산 및 투자 계획의 변화가 요구된다.

- 특히,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업종에 속한 기업들은 향후 선진국 시장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엄격한 환경기준에 부합되는 친환경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또한, 세계 경제가 점차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요구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이에 대응하여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생산설비 확충에 주력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투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의 폭과 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임

넷째, 시장 자율 기능을 통한 구조적 불황 지속 산업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 대부분의 산업들이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인 반면, 조선업과 건설업은 구조적 수급 문제로 이번 경기 회복에서 배제된 산업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 특히 이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이들 업종들이 회복될 가능성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두 업종의 산업 리스크가 금융권 리스크로 확산될 우려가 존재함
- 이에 한계가 있는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나 방치를 지양하고 시장 자율 기능을 통해 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HRI**

산업 전망 담당 연구원

【총괄】	한상완 산업전략본부장 (swhan@hri.co.kr, 2072-6230)
	주원 연구위원 (juwon@hri.co.kr, 2072-6235)
【조선업·해운업】	예상한 연구위원 (syeahk@hri.co.kr, 2072-6232)
【기계산업】	전해영 연구원 (haloween@hri.co.kr, 2072-6241)
【자동차산업】	허만을 연구위원 (myhur112@hri.co.kr, 2072-6236)
【철강산업】	김필수 연구원 (phil7941@hri.co.kr, 2072-6238)
【석유화학산업】	임상수 연구위원 (happylims@hri.co.kr, 2072-6239)
【물류택배업】	이장균 수석연구위원 (johnlee@hri.co.kr, 2072-6231)
【IT제조업】	김종호 연구위원 (jonghokim@hri.co.kr, 2072-6240)
【건설업】	이원형 연구위원 (lee@hri.co.kr, 2072-6233)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구 분	2008	2009 ^P			2010 ^P				2011 ^E		
		3/4	4/4	연간	1/4	2/4	3/4	연간 ^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1.0	6.0	0.2	8.1	7.2	4.5	5.9	4.3	
	민간소비 (%)	1.3	0.7	5.8	0.2	6.3	3.7	3.3	4.2	3.8	
	건설투자 (%)	-2.8	4.4	5.0	4.4	2.3	-2.9	-2.1	0.2	1.5	
	설비투자 (%)	-1.0	-7.0	13.3	-9.1	29.9	30.2	25.2	20.0	8.5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58	104	106	427	13	103	121	300	197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	-133	102	124	405	30	145	116	400	297
		수출 (억 \$)	4,220	948	1,040	3,635	1,011	1,203	1,173	4,516	5,003
		증감률 (%)	(13.6)	(-17.6)	(11.7)	(-13.9)	(35.8)	(33.1)	(23.7)	(24.2)	(10.8)
		수입 (억 \$)	4,353	848	929	3,231	981	1,058	1,507	4,114	4,707
증감률 (%)	(22.0)	(-31.0)	(1.4)	(-25.8)	(37.4)	(43.0)	(24.5)	(27.3)	(14.4)		
소비자물가 상승률 (%)	4.7	2.0	2.4	2.8	2.7	2.6	2.9	2.9	3.0		
실업률 (%)	3.2	3.6	3.3	3.6	4.7	3.5	3.5	3.8	3.5		
국제유가 (평균, Dubai, \$/배럴)	94	68	75	62	76	78	74	78.8	88.7		
웬달러 환율 (평균, 원)	1,103	1,239	1,168	1,276	1,143	1,165	1,184	1,159	1,090		

주: P(Preliminary)는 잠정실적치, E(Expectation)는 전망치.